

홍콩 반환에 따른 홍콩문학의 변화와 의미*

金惠俊**

<目 次>

1. ‘홍콩문학’의 개념과 홍콩문학에 대한 관심
2. 정체성 탐구의 퇴조와 도시적 현상의 회복
3. 문학 활동의 활성화와 문학 환경의 악화
4. 순문학과 통속문학의 소통 및 칼럼산문의 저조
5. 홍콩문학의 지위 제고와 지역문학으로의 위축에 대한 우려
6. 일시적 요동, 일상의 회복, 변화의 잠재

1. ‘홍콩문학’의 개념과 홍콩문학에 대한 관심

‘홍콩문학’이라는 용어에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이면서도 상호 불가분하게 얽혀 있는, 최소한 세 가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홍콩에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1-A00345)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dodami@pusan.ac.kr

존재한 또는 존재하는 문학이라는 개념이다. 둘째는 베이징문학이나 상하이문학과 같이 중국문학 내의 어느 한 지역문학이라는 개념이다. 셋째는 중국대륙문학과 타이완문학 및 기타 세계 각지에 산재하는 ‘華文文學’ 등과 병립될 수 있는, 중국문학이라는 큰 범주 아래의 특정한 한 하위 범주로서의 개념이다.

이 세 가지 개념 중 주로 어느 것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홍콩문학의 출발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홍콩과 중국 대륙 학자의 경우 1874년(劉以鬯, 王晉光, 劉登翰 등), 1927년(謝常青, 潘亞暎, 汪義生 등), 1930~40년대(王劍叢, 易明善 등), 1950년대(黃繼持 등), 1960년대 중후기(鄭樹森 등), 1970년대(黃康顯 등)로 엇갈린다.¹⁾ 또 우리나라 학자의 경우에도 각자가 명확하게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1920년대(김혜준), 1960년대 또는 1970년대(임춘성), 1980년대(유영하) 등으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²⁾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문학의 범주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홍콩문학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수많은 사항들이 논란 중에 있다. 이는 달리 보자면 홍콩문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홍콩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8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했다. 1982년 9월 22일 영국 수상 대처의 중국 방문과 1984년 9월 중

- 1) 좀 더 상세한 것은 王劍叢, 「對香港文學史編纂問題的思考」, 黃維樑 主編, 『活潑紛繁的香港文學: 1999年香港文學國際研討會論文集』,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0), 663-675쪽 및 黃子平, 「香港文學史: 從何說起」, 陶然 主編, 『香港文學』 總第217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有限公司, 2003.1). 20-21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필자 역시 홍콩문학이 중국대륙문학과 병칭되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과정을 도외시키고 홍콩문학의 출발을 그러한 독자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설명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을 뿐이다. 한편 신현준은 칸토팝을 예로 들어 대중문화의 경우 홍콩성이 197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상 임춘성, 유영하, 신현준 및 그의 학자의 홍콩(문학)에 관한 연구는 우리 학회지 21, 23, 30, 31, 33, 36, 37호에 실린 것을 참고하고, 필자의 견해는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 『중국어문논총』 제25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03년 12월, 517-53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영 양국의 「關於香港問題的聯合聲明」의 발표 등을 통해 홍콩 반환의 문제가 점차 가시화되었다.³⁾ 종래 자신이 누구이며 홍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별반 주의하지 않던 홍콩인들은, 이때부터 비로소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한편 스스로 그 정체성을 만들어어나가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문학계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4년 4월 5일 中大學生報와 中文大學 文社가 공동으로 ‘九七的啓示: 中國·香港文學的出路座談會’를 개최했고, 1985년 7월 香港青年作者協會는 회지 『香港文藝』를 ‘1997與香港文藝’ 특집호로 발간했다. 홍콩문학 역시 홍콩 내외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 찾기와 의미 부여를 시도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글은 주로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과 관련하여 최근 홍콩문학이 어떤 변화를 보였으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외에도 가능하다면 인적 문화적 네트워크로서의 중국의 문학 내에서 홍콩문학이 장차 어떠한 진전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정체성 탐구의 퇴조와 도시적 현상의 회복

홍콩문학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추구는 특히 소설 부문에서

3) ‘1997년 홍콩 반환’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는 영국, 중국, 홍콩 및 기타 지역 등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를 표현하는 용어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권에서는 *handover*, *transfer*, *transition*, *return*, *reunion*, *reunification* 등이, 중국어권에서는 移交, 交還, 回歸, 歸還, 收復, 恢復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전, 이양, 반환, (중국으로의) 진입, 귀환, 회귀 등이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에는 단순히 ‘되돌아오거나 되돌아 감’(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이란 뜻이 있으며, 다른 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상적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일 뿐이다. 앞으로 학계에서 ‘1997년 홍콩 반환’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 및 이와 관련한 용어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비교적 분명히 나타났다.⁴⁾ 우선 홍콩의 장래나 홍콩의 정체성 또는 홍콩과 중국대륙의 차이 등에 관심을 가진 작품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홍콩 반환을 직접적인 제재로 한 「一九九七」(劉以鬯), 「長廊」(葉妮娜), 「天平」(陶然), 「神打」(也斯) 등의 단편소설과 「頭上一片雲」(梁錫華), 「一九九一」(季子), 「福地」(白洛), 「香港九七」(陳浩泉), 「太平門內外」(梁錫華) 등의 중·장편소설이 속속 발표된 것이 그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작품은 양적으로 늘어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도 더욱 다양화, 구체화, 심층화되었다. 상대적으로 보아 1980년대에는 「胭脂扣」(李碧華)나 「最後的古俗迎親」(海辛) 등 홍콩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와 과거를 살펴보는, 그 중에서도 특히 홍콩의 과거를 회고하는 일종의 역사 정리성 작품이 상당히 많았다. 또 「不, 不能再分開了!」(劉以鬯) 등 중국대륙의 변동이나 「天譴」(顏純鈞) 등 중국대륙에서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과 관련한 작품 역시 점차 늘어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失城」(黃碧雲)을 위시하여 ‘홍콩성’의 추구가 명확한 ‘도시의 상실 失城’ 내지 ‘도시로부터의 소외 此地他鄉’를 보여주는 작품이 더욱 현저해졌다. 또 이와 관련하여 「仲夏之魘」(黎翠華), 「兩種對立的生活」(吳永傑) 등 외국 이민과 관계있는 이야기가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제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永興街興衰史」(董啓章)와 같이 과거 회고형 작품은 그 심도가 더욱 깊어졌고, 동성애를 다루는 「復活不復活是氣旋」(蔡志峰)처럼 오히려 현대적 대도시로서 홍콩 사회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강조하는 작품들도 일정한 숫자를 형성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역사 회고, 신 이주자, 외국 이민, 도시로부터의 소외, 도시의 상실, 홍콩의 사회적 현상 등 중국대륙과 구별되는 홍콩만의 특징 및 홍콩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을 표현함으로써, 홍콩의 정체성을 찾고자하거나 그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주류를 이루었

4) 이하 소설과 관련한 언급은, 1984년 이래 2,3년 간격으로 꾸준히 출판되고 있는 『香港短篇小說選』(香港三聯書店)과 2000년 8월 이후의 『香港文學』(香港文學社)에 게재된 작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전자의 서문을 일부 참고했다. 편자의 개인적인 문학과 취향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홍콩문학의 일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자 다소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먼저 반환 후에는, 같은 도시의 상실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이민과 같이 홍콩 반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도시의 상실보다는, 「輸水管森林」(韓麗珠)나 「6座20樓E6880**(2)」(陳麗娟)처럼 현대적 대도시 자체가 가져오는 소외 현상으로서의 도시의 상실을 표현하는 작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無愛紀」(黃碧雲), 「飛翔」(郭麗容), 「意粉、竹葉、小紋和其他」(小樹), 「幸福身體」(謝曉虹) 등 도시 남녀 간의 각양각색의 애정 이야기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홍콩의 정체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홍콩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룸으로써 정체성의 탐구와 추구를 내면화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⁵⁾ 물론 여기에는 홍콩 반환이 막상 현실화되고 나자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된 점이라든가, 비록 일국이체제 하의 특구가 되었지만 실제 생활상으로는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心情」(許榮輝), 「貓兒眼」(關麗珊), 「歸宿」(周蜜蜜), 「螞蟻」(梁偉洛) 같은 작품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체성 문제에 대한 집중적 조명하에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었던 계급, 여성, 후식민지적 문제 및 사회적 관심이 재부각되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⁶⁾

소설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홍콩 반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5) 필자 등에 의해 홍콩 신예 여성작가 소설선인 『사람을 찾습니다』(이젠미디어)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이 소설선을 편선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연령상으로 20, 30대에 해당하는 작가의 1997년 이후 작품 중에서 비교적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21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그 후 이를 분류해보니 도시의 소외 5편, 도시의 생활 5편, 도시의 사랑 11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작품 중에는 「我不能跟你說對不起」(馬俐) 처럼 부분적으로 홍콩과 홍콩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정체성의 탐구 및 추구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6) 趙稀方은 「香港文學的年輪」, 『作家月刊』(香港) 第31期, 2005.1, 70-80쪽에서 ‘북진 상상’ 등 이와 관련된 일부 사항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변화를 보였다. 우선 1997년 전후하여 시집이 대량 출판된 것이 그 중 하나다. 과거 홍콩에서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출판된 시집은 모두 200종이 넘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에만 이와 맞먹는 근 200종의 시집이 출판되었으며, 1997년 이후 시집의 출판은 더욱 늘어났다.⁷⁾ 이와 같은 시집의 대량 출간은, 아마도 시 창작 특유의 민감성 및 신속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950~1997년 사이의 대표적 신시 300여 편과 각종 시집 및 시문학지의 총목록을 첨부한 『香港近五十年新詩創作選』(2001)의 면모에서 보듯이 분명 홍콩 반환과 관계가 있다. 1997년 6월 香港散文詩學會의 결성, 2000년 12월 香港散文詩研討會의 개최, 『香港散文詩選』(1998)과 [香港散文詩叢書](2002, 2004)의 출판 등 산문시 분야의 갑작스러운 활성화 역시 홍콩 반환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에는 홍콩작가들 자신의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 대륙쪽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中國散文詩學會會長이기도 한 柯藍은 수차례 홍콩을 직접 방문하면서 香港散文詩學會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홍콩 반환 이후 산문시에 대해서는 “그 중 적지 않은 작품에 홍콩 반환의 기쁨과 사색이 넘친다”⁸⁾와 같은 평가를 내렸다. 전기문학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 역시 홍콩 반환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홍콩문학사는 전기문학을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주로 정치적인 인물을 많이 다루는 전기문학의 특성상 정치성이 과도하여 문학적인 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라든가, 민감한 화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연구자들이 이를 회피했기 때문일 것이다.⁹⁾ 그러나 『香港傳記文學發展特色及其影響 — 香港傳記文學學術研討會論文集』(2000), 『香港傳記文學發展史』(2003)의 출간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상황에 변화가 생겨났다. 이는 홍콩 반환과 더

-
- 7) 胡國賢, 「編者前言 — 夢想成真」, 胡國賢 編, 『香港近五十年新詩創作選』, (香港: 香港公共圖書館, 2001)
- 8) 柯藍, 「春雷滾滾來 序『香港散文詩選』」, 香港散文詩學會 主編, 『香港散文詩選』, (香港: 香港文學報出版社, 1998.2), 15쪽.
- 9) 古遠清, 「蹊徑獨闢, 和而不同 — 2000年的香港文學研究」, 『古遠清自選集』, (Kuala Lumpur: 馬來西亞燭火出版社, 2002.5.), 242-251쪽.

불어 중국대륙의 주도권 확보에 따른 정치적 유연성이 늘어난 것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보아 전과 같은 좌우 대립적 형태의 경쟁 상황이 완화된 것 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분야 역시 소설 분야와 마찬가지로 홍콩 반환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츰 일종의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서 비교적 평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간 듯하다. 예를 들어 산문의 경우, 陳德錦의 분석을 참고로 해보면,¹⁰⁾ 2000년 8개의 간행물에서만 440여 편의 산문이 발표되었는데, 비록 그 중에는 ‘홍콩성’의 탐구 및 추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산문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홍콩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그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외지로부터 홍콩에 이주해온 사람들의 문화적 신분에 관한 성찰이나 외국으로 이민하여 이국의 생활에 관한 경험을 쓴 산문 등이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생활의 감수와 인정상태 또는 사회 시평이나 독서 경험을 쓴 것, 인생의 관찰과 문화적 사고 또는 사회적 체험을 쓴 것, 정보화 세계 속에서의 자아 탐구를 쓴 것, 도시의 관조나 문화의 여정을 쓴 것, 시나 회화 등과 관련한 미적 추구를 쓴 것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현대적 대도시에 살고 있는 홍콩인의 삶을 표출함과 동시에 인류 보편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를 요약하자면, 홍콩 반환 이후 홍콩문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한 가지는, 홍콩 반환으로 비롯된 정체성 탐구 및 추구의 심리에서 다소 벗어나서 홍콩문학의 대표적 특징의 하나인 다양한 예술적 탐색¹¹⁾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10) 陳德錦, 「千禧年香港期刊散文綜論」, 陶然 主編, 『面對都市叢林: 『香港文學』文論選(2000年9月~2003年6月)』, (香港: 香港文學出版社有限公司, 2003.7), 264-284쪽.

11) 이 점에 관한 좀 더 상세한 것은 이 글 ‘6. 일시적 요동, 일상의 회복, 변화의 잠재’ 부분 및 필자의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3. 문학 활동의 활성화와 문학 환경의 악화

홍콩 반환이 부각된 1980년대 초 이래 홍콩 문단에서는, 國際筆會香港中國筆會(1955), 鑪峰雅集(1959), 風雨文社(1963), 國際筆會香港(英文)筆會(1975), 香港青年作家協會(1978), 香港文學藝術協會(1979), 香港兒童文藝協會(1981), 香港青年作者協會(1982) 등 기존의 문학단체 외에도, 龍港文學社(1985), 香港詩人協會(1985), 當代詩學會(1987), 香港作家協會(1987), 香港作家聯誼會(1988), 世界華文詩人協會(1989), 國際華文詩人協會(1980년대말), 香港文化藝術工作者聯合會(1990), 香港青年寫作協會(1994), 香港散文詩學會(1997)가 새로 창립되는 등, 각종 문학 단체의 활동이 전에 없이 활발해졌다. 홍콩 반환 직후인 1997년 말 당시 40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¹²⁾ 이들 각종 문학단체의 활동은, 그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주로 문화대혁명 이후 이주해온 중국대륙 출신 작가로 구성된 香港作家聯會(1992년 香港作家聯誼會에서 개명)는, 회지인 『香港作家』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香港作聯作品集], [香港作聯文叢], [香港文學叢書], [香港紫荊花書系] 등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1998년에는 창립 10주년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는 등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¹³⁾ 香港文學促進會(1991년 龍港文學社에서 개명)는 그 동안 300여 권의 [龍港文學叢書], 6권의 [香港當代文學精品叢書], 63권의 [龍港詩叢(中英對照)]를 출간했고, 2003년 11월에는 홍콩 역사상 최대의 문학상이라는 中華文化杯優秀文學獎을 개최하기도 하였다.¹⁴⁾ 또 그 중에는 창립 이후 내부 갈등으로 인해 활

12) 蔡敦祺 主編, 『1997年香港文學年鑑』, (香港: 香港文學年鑑學會出版, 1999.3), 15쪽.

13) 香港作家聯會 編, 『香港作家聯會十年慶典特刊』, (香港: 香港作家聯會出版部, 1998.3.) 참고.

14) 『香港最大型的文學頒獎活動』, 『香江文壇』總第23期, (香港: 香江文壇有限公司, 2003.11.), 63-65쪽.

동이 원만치 않았던 香港作家協會 조차도 조직을 정비하여, 홍콩 반환 이후 회지인 『作家』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香港作協叢書] 등 다수의 출판물을 출간하는 등 일정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문학지 및 문학서의 출판이 활발해진 것 역시 홍콩 반환과 관련하여 홍콩문단에 나타난 현저한 변화 중 한 가지다. 香港中文大學 香港文學資料庫의 學報及期刊文章을 토대로 하여 집계를 해본 결과, 1993~1997년의 5년 사이에 새로 창간된 문학지의 수가 20여 종에 달하며, 1998~2002년의 5년 사이에 새로 창간된 문학지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은 30여 종이 넘는다. 물론 이렇게 많은 문학지가 창간된 반면에 다른 많은 문학지들이 정간 내지 폐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문학지의 발간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랜 기간 대체로 안정적 내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香港文學』, 『素葉文學』, 『當代詩壇』, 『武俠世界』 등의 문학지를 포함해서, 1997년의 경우 유서 깊은 『詩』雙月刊이 복간되는 등 모두 20여 종의 문학지가 발간되었고, 2000년의 경우 수준 높은 면모를 갖춘 『文學世紀』가 창간되는 등 거의 30종에 달하는 문학지가 발간되었으며, 2002년의 경우 특구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文學世紀』, 『香江文壇』, 『詩潮』, 『詩網絡』 등 30종이 넘는 문학지가 발간되었다. 문학서 방면에서는 전술한 각종 문학단체의 총서 외에도 [香港劇本叢書](1995~2005), [文化視野叢書](1996~2001), [香港散文詩叢書](2002~2004), [香港文學選集系列](2003~2005), [香港原創文學叢書](2005), [香港文學評論精選](2005) 등 총서류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香港短篇小說選, 新詩選, 散文選, 散文詩選, 劇本集, 網絡文學選 등 선집류를 포함해서 많은 작품집과 평론집이 출판되었다. 1997년의 경우 香港藝術發展局이 지원한 개인 저작만 108권에 이르렀으며,¹⁵⁾ 2005년의 경우 香港藝術發展局의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출간된 개인 작품집이 대략 50종에 이르렀다.¹⁶⁾ 다른 한편으로는 1997년 전후 이래 홍

15) 蔡敦祺 主編, 『1997年香港文學年鑑』, (香港: 香港文學年鑑學會出版, 1999.3), 862-866쪽 참고.

16) 香港藝術發展局 홈페이지 <http://www.hkadc.org.hk/tc/> 참고.

공과 중국대륙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수종의 『香港文學史』 및 『香港當代文學批評史』(1997), 『香港小說史』(1999)와 같은 이론서의 출판이라든가, 홍콩 자체의 『香港近現代文學書目』(1998), 『早期香港新文學資料選 1927~1941』(1998), 『早期香港新文學作品選 1927~1941』(1998), 『香港小說選 1948~1969』(1998), 『香港散文選 1948~1969』(1998), 『香港新詩選 1948~1969』(1998), 『國共內戰時期 香港文學資料選 1945~1949』(1999), 『國共內戰時期 香港本地與南來文人作品選 1945~1949』(1999), 『香港六七十年代文社運動整理及研究』(1999), 『香港文學年鑑 1997年』(1999), 『香港新文學年表 1950~1969』(2000)와 같은 자료서의 출판은 홍콩문학의 성취를 소개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변화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 문학상과 문학행사도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2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香港大學學生會와 香港中文大學學生會의 青年文學獎이라든가 2000년에 시작된 香港中文大學文學院의 新紀元全球華文青年文學獎 등 민간의 활동 외에도, 香港康樂及文化事務署 香港公共圖書館과 香港藝術發展局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1979년부터 1994년 이전에는 매년, 1994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中文文學創作獎을 거행하고 있고, 1991년부터 中文文學雙年獎을 거행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매년 香港文學節를 개최하고 있고, 1997년부터 香港藝術發展局文學獎을 거행하고 있다. 문학 보급을 위한 일련의 실천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香港教育署는 근래 7~8년간 중등학교 추천도서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서구입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홍콩 출판의 문학작품이다. 香港電臺電視部의 경우 1997년 2회에 걸쳐 홍콩문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학 활동의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한 시대를 매듭짓는 시점에서 지년간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문학가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다만 그런 이면에는 이와 같은 문학가들의 주관적 의도 외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영국, 중국대륙, 타이완 및 홍콩 자체와 관계있는 각종 세력 또는 집단의 수면하

의도가 일정한 작용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문학단체가 대개 중국대륙과 관계가 있다는가 중국대륙과 관계가 있는 학술회가 비교적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나고,¹⁷⁾ 香港80年代文學現象研討會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타이완 쪽의 의도가 개입한 학술회가 개최된 것에서도 나타난다.¹⁸⁾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무래도 종래에는 없던 홍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었다.

식민지정부는 그 동안 의도적으로 홍콩의 문화 발전을 방치해왔다. 특히 문학 분야는 거의 철저하게 외면해왔다. 그들은 홍콩의 전통적인 보수적 문화를 이용하여 기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공고화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⁹⁾ 그런데 홍콩 반환을 앞두고 식민지정부는 이러한 태도를 정반대로 바꾸었다. 1994년 4월 15일 약 1억 홍콩달러를 기금으로 하는 香港藝術發展局을 신설하고, 1994년 8월 1일 그 산하에 文學藝術委員會를 구성한 뒤, (1) 교육 (2) 자료 정리 및 연구 (3) 창작 및 출판 (4) 지역사회 확산 및 대외 교류 등 네 가지 방면에서 문학 분야에 각종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아마도 식민지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 전환은 홍콩 반환 이후에도 일정 정도 영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행정적으로는 홍콩에서 손을 떼지만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영국의 영향력을

17)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香港作家協會의 경우 초기에는 반중국대륙계 인사가 주도했으나 내부 분규를 거쳐 나중 친중국대륙계 인사가 주도하게 되면서 1997년 이후에는 중국대륙의 作家協會의 지원 하에 비교적 안정적인 활동을 보이게 되었다.

18) 정치색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발표 내용은 없지만, 학술회 준비 과정에서 타이완측 학자가 상당수 참여한 점, 발표 장소가 타이완 계열의 光華新聞文化中心인 점, 개막식의 주요 발언자들이 타이완측 관련 기구의 인사인 점, 중국 대륙계 학자가 거의 없는 점, 학술회 결과물인 논문집이 타이완에서 출판된 점 등에서 어느 정도 이를 알 수 있다. 黎活仁 等, 『香港八十年代文學現象』(1,2), (臺北: 學生書局, 2000) 및 古遠清, 「為重構香港文學多元化生態的努力和收穫 — '98~'99年的香港文學研究述評」, 『古遠清自選集』, (Kuala Lumpur: 馬來西亞燭火出版社, 2002.5), 232-241쪽 참고.

19) 黃繼持, 「香港文學主體性的發展」, 黃繼持 等, 『追跡香港文學』,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1998), 92-95쪽 참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말하자면 일종의 영국적 전통을 형성하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흥미롭게도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새로 구성된 특구정부 역시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홍콩 사회 전체라는 워낙 방대한 체제를 접수한 터라 이를 그대로 지속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사실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구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 문화계 지식인의 우려와 불만을 무마하는 한편 오히려 중국대륙적 전통을 새롭게 형성 내지는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단히 유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특구정부와 과거의 식민지정부는 각기 목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 의도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쪽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장려금 지원을 위주로 하는 홍콩정부의 이와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홍콩문단의 활성화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문학지와 문학서의 출판이 늘어나고, 각종 문예상과 문예행사가 빈번한 데는, 종래에 없던 이와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확실한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첫째, 지원 불균형 현상이다. 어떤 분야는 지원액이 부족하여 신청해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액수가 크게 모자랐으며, 어떤 분야는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도 없이 과다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²¹⁾ 예를 들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30여 종의 문학지를 지원했는데, 이 중에는 심지어 신문의 부간에 속하는 것도 있었다.²²⁾ 또 개별 저작의 경우 선정된 작품에는 옥석이 뒤섞여 있었다. 둘째, 문학의 자체 생존력 약화다. 문학지의 경우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20) 黃維樑, 「十多年來香港文學地位的提升」, 『香江文壇』總第11期, (香港: 香江文壇有限公司, 2002.11), 15-16쪽 참고.

21) 古遠清, 「“九七”前夕的香港文壇」, 『古遠清自選集』, (Kuala Lumpur: 馬來西亞燭火出版社, 2002.5), 213-222쪽.

22) 黃坤堯, 「香港藝術發展局2002年度委約出版的文學雜誌述評」, 『香江文壇』總第11期, (香港: 香江文壇有限公司, 2002.11), 77-84쪽.

있는가 하면 사라지는 것도 있을 만큼, 일단 지원이 중단되면 곧바로 정간 내지 폐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장려금 지원에 따라 문학지나 문학서의 출간이 수적으로는 증가했지만, 그러한 수적 증가가 곧 독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겐 근본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려금을 지원받는 문학지나 문학서가 문학적 의의나 수준면에서 편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지원제에 안주해서 독자 확보에 대한 고려 및 노력을 결여한 점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장려금 지원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문학의 자체 생존력을 갈수록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는 셈이다. 셋째, 잠재적인 문학의 행정 예측 가능성이이다. 비록 직접적인 간섭은 없다고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문학활동이 크든 작든 간에 행정적 기준에 얽매이게 됨을 뜻한다. 달리 말하자면, 만일 행정 쪽에서 일정한 정책적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개입시키게 된다면 문학활동은 불가피하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홍콩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문학 활동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상업적 문화적 측면에서 홍콩문학의 사회적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홍콩문학의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근래의 일 만은 아니다. 이전부터 인구 과밀의 자본주의적 도시로서 홍콩의 열악한 거주 조건, 과중한 생활 압력, 긴박한 도시 리듬, 저열한 고료, 신문 지면 위주의 작품 발표 등은 홍콩작가들의 문학 행위를 심각하게 제한해왔다.²³⁾ 그러나 문제는 근래에 들어와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다.²⁴⁾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문학을 감상 또는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적 도매상에 의한 초판 배부는 50부 좌우이

23)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24) 인기작가인 陶傑은 매일 4천자를 써야 한다고 하며, 西西의 1년 인세 및 원고료 수입은 대학 강사의 일주일 임금밖에 안된다고 한다. 許子東, 『吶喊與流言』,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4.10.), 280쪽 참고.

고,²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작가라면 소설과 산문은 2~3년 동안 기껏해야 4~5백부가 팔릴 뿐이며, 시집은 아예 거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인구 700만의 홍콩에서 고정적인 독자는 겨우 2000명 전후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을 정도이다.²⁶⁾ 이 같은 독자 수의 감소는 곧 상업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학의 생산과 유통을 위축시키게 되며, 이는 다시 문학 소비자의 수를 더욱 줄어들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게 된다.

서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980년대 초 旺角 지역에서 2층 입점 서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홍콩 반환 전후에 이르면 이런 서점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대형서점이 곳곳에 분점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현재에 이르면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2층 입점 서점은 찾기부터 어려운 건물 입구에서 비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동안 올라가야 하는 3층 전후의 고층 입점 서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편 대형서점의 분점은 일반적으로 지층을 포함하는 수개 층을 차지하면서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선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서점의 경영 상황이 호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정된 독자층을 겨냥하여 서점의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형서점은 중국대륙서적의 대량 판매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旺角 지역의 소형서점들 역시 이에 따라 홍콩서적이나 타이완서적보다는 주로 중국대륙서적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대륙 책이 저렴하여 홍콩독자들의 구입이 많기 때문으로, 이런 상황에서 홍콩문학 작품은 당연히 더욱 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²⁷⁾

25) 東瑞, 「香港文學書籍和市場需求」, 『作家月刊』(香港) 第25期, 2004.7., 18-24쪽.

26) 許迪鏘, 「香港文學展望 — 由一點個人經驗出發」,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編, 『第三屆香港文學研討會講稿彙編』, (香港: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1999.11.), 158-172쪽 참고.

27) 이상의 언급은 주로 2005년 12월 중순에서 2006년 1월 말까지 약 7주간 현지 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사는, 30여 곳의 홍콩 및 홍콩 인근 지역의 서점과 수 곳의 출판사 방문 및 서점 직원, 출판사의 편집자, 홍콩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한다. 이하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콩문학의 출판 판매 사항 등과 관련된 언급은 대체로 이 현지 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직접적으로 문학지 및 문학서의 출판과 판매에 영향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홍콩 특유의 문학 활동의 주요 근거지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신문의 쇠퇴 및 문예 부간의 정간 및 폐간이 바로 단적인 예다. 1970년대 1일 20만부로 한때 판매부수가 가장 많았던 『星島晚報』가 1996년 2만부 전후로 떨어지더니 결국 12월 17일 폐간되었고, 그 후 유일한 석간인 『新晚報』 역시 1997년 7월 26일에 폐간되었다. 이에 따라 당연히 『星島晚報』의 『大會堂』, 『新晚報』의 『星海』가 폐간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1998년 11월 30일 『文匯報』의 『文藝』가 정간되고 문예성이 비교적 강한 『快報』 부간도 정간되는 등 많은 신문의 문예 부간이 폐간 또는 정간되었으며, 『明報』小說版, 『星島日報』星河版은 매일 소설을 실은 바 있지만 지금은 이미 없어져버렸다.

물론 문학의 사회적 환경의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영상문화 및 인터넷문화의 발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 때문에 문학계에서는 영상 및 인터넷과 결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문학의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 인터넷을 주목하기도 했다. 정식 출판의 기회가 적은 젊은 작가는 왕왕 인터넷에 작품을 발표하였고, 수많은 동호인이 가담하는 등 한때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예컨대 ‘我有我創作’ 인터넷창작경연대회의 경우, 2000년 11월 23일에서 2001년 1월 29일까지 단 두 달 동안 백여 편의 원고를 받았으며, 연인원 2만여 명이 작품을 검색했고 누리꾼의 투표수도 연인원 3천명에 달했다.²⁸⁾ 또 그 과정에서 활자매체에 발표되는 작품에서도 인터넷의 특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기도 했는데, 「天堂舞哉足下」(崑南)와 같은 하이퍼텍스트적 기법을 응용한 ‘하이퍼텍스트 소설 裝置小說’의 등장도 그렇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인터넷문학은 글을 발표하는 한 방식일 뿐 문학 발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젊은 작가들의 독특한 스타일이 형성되기도 전에 인터넷문학의 열기가

28) 迪志文化出版編輯部, 「編者手記」, 迪志文化出版編輯部 編, 『香港網絡文學選集: 心情網絡』,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1.4.)

점차 쇠퇴하고 있다. 이는 주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속성 탓이다. 독자의 반응이 빠르고 열광적이기는 하지만, 작가는 작품을 숙성시킬 여유가 없어서 즉흥적이고 짧고 간단한 쪽으로 흐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글은 일회용의 오락적 소비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지명도를 얻게 된 작가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판할 기회를 갖게 될 경우 인터넷 창작을 그만 두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좋은 작가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독자들의 관심 역시 줄어들어 지금은 초기의 관심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혹자는 ‘인터넷문학은 이미 생명이 끝난 썸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²⁹⁾

홍콩문학의 환경 악화는 문학 활동의 장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홍콩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 등으로 인해 우수한 작가의 배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우선 언어적 환경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홍콩은 중국어와 영어가 주요 언어인데, 그 동안 일상 언어에서는 중국어가, 행정 언어에서는 영어가 절대적 우세를 보이다가, 홍콩 반환 이후 중국어가 모든 면에서 주도어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이중적인 언어생활을 해온 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어라고는 하지만, 구두어에서는 절대적으로 粵語가 사용되고 있고, 서면어에서는 國語(또는 普通話)와 粵語가 각기 사용되거나 심지어 이런 것들이 서로 뒤섞인 가운데 일부 文言의 조사까지 가세한 이른바 ‘三級第’가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구두어와 문장상의 서면어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비록 언어를 도구로 한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거의 문장으로 창작이 이루어지고

29) 今何在, 「現在的所謂網路文學」, 李蘊娜 編, 『第四屆香港文學節論稿匯編』, (香港: 香港藝術發展局, 2003), 91-104쪽 및 李蘊娜, 「第四屆香港文學節研討會紀實」, 李蘊娜 編, 『第四屆香港文學節論稿匯編』, (香港: 香港藝術發展局, 2003), i-xi쪽 참고. 중국대륙의 상황도 상당히 유사한데, 이에 관해서는 우리 학회지 33호에 게재된 이보경, 「인터넷과 매체—중국의 인터넷 문학에 관한 보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있는 문학 상황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홍콩의 특수한 언어적 여건은 문학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쓰기 훈련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긴요한 일이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홍콩 반환 이후 普通話의 확산과 粵語 및 영어 사용의 상대적 축소는 언어상의 현실 표현력 감소 및 서구 문화 수용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홍콩문학 특유의 지역성과 세계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도시적인 홍콩 사회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삶의 경험 부족 역시 우수한 작가의 배출과 우수한 작품의 탄생에 지장을 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문학 창작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양한 삶의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홍콩은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이면서도 구성원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한데다가 전체 생활환경 자체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작가 또는 작가 후보군이 성장기에는 학교와 가정만 오간 다든가 심지어 성인기에도 다양하고 절실한 사회적 체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홍콩 현실에 대해 별반 이해가 없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의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조차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학 신입생에게 독서 경험을 물어보면 李白、蘇東坡 외에 金庸、倪匡、亦舒、張小嫻 그리고 일부가 張愛玲을 읽은 정도라고 하며, 번역소설은 거의 읽은 게 없는데 읽었다고 하더라도 무라카미 하루키 등일 뿐이라고 한다.³⁰⁾ 물론 영상 문화 인터넷문화의 보급에 따라 독서 경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문학의 차원에서 보자면, 간접적이거나 다양한 삶의 경험이 가능한 한 통로가 막히고 있다는 뜻이자, 문학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홍콩의 문학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30) 許子東, 『吶喊與流言』,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4.10), 281쪽 참고.

상당히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문학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양자에는 홍콩 반환이 각각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4. 순문학과 통속문학의 소통 및 칼럼산문의 저조

앞서 말했다시피, 홍콩 반환이 가시화한 이래 홍콩문학은 홍콩성을 탐구하고 건설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홍콩 반환 이후 이러한 노력은 점차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있어서는 순문학이든 통속문학이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통속문학 작가로 알려져 있는 亦舒와 李碧華의 작품인 「諾言」과 「月媚閣的餃子」에서도 홍콩, 도시, 젠더, 정치, 식민, 후식민 등의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이다.

사실 홍콩의 순문학과 통속문학은 확연하게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 동안 홍콩의 순문학은 주로 홍콩의 도시성, 국제성을 강조하면서 모더니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페미니즘 등 갖가지 형태의 서구 영향을 수용하면서 홍콩의 특수성을 추구해왔다. 반면에 홍콩의 통속문학은 주로 통속성, 오락성을 내세우면서 영국의 영어문화와 중국대륙의 사대부 문화와 구별되는 홍콩의 특수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양자는 선택한 방식이 달랐을 뿐 실제로는 상호 영향을 주는 불가분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근래에 와서는 점차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일부 산문 평가들이 잇따라 대중매체 통속 언론에 글을 게재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순문학 작가들이 작품 내지 표현의 시장성에 주의하고 있다. 반면에 亦舒나 李碧華는 그들의 작품에서 갈수록 정련된 표현, 빠른 리듬, 비약적 서술, 주어의 생략 등을 통하여 언어 층차(서사 시간) 면에서 많은 여백을 부여하고 있다.³¹⁾

어쩌면 홍콩의 순문학과 통속문학 간의 상호 친연성은 홍콩문학이 중국대륙문학과는 다른 전통을 이어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許子東에 따르면, 중국의 현대문학은 계몽 구세의 사회 문학, 문인 전통의 자유주의 문학, 오락 통속의 유행문학, 모더니즘적 도시 감성 문학 등 크게 네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중 중국대륙에서는 주로 앞의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며 발전해왔다고 한다면, 홍콩에서는 주로 뒤의 두 가지가 상호 영향을 주며 이어져왔다고 한다.³²⁾ 이렇게 본다면,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통속문학과 순문학이 갈수록 상호 접근하고 있는 현상은, 중국대륙의 문학에 공동 대응하는 한 방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은연중에 중국대륙 문학과의 상대적인 차별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홍콩의 순문학과 통속문학은 이처럼 서로 보완적으로 존재하면서 홍콩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홍콩의 칼럼산문은 순문학과 통속문학이 서로 소통하는 홍콩 특유의 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원래 홍콩의 칼럼산문은 정치평론이나 사회평론과 같은 정론칼럼과 대체로 신문의 문예 부간에 게재된 문예소품 이 양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연재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크게 성행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산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문학 기준에서 본다면 칼럼산문은 문예평론과 소품산문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칼럼산문은 길이가 짧고 문장이 매끄러우면서 다루는 문제가 광범위한데다가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성격 탓에 칼럼산문의 문학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적잖은 작품이 뛰어난 산문 작품으로 감상 또는 연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³³⁾ 다른 한편에서는 ‘패스트푸드문학(快餐文學)’, ‘인스턴

31) 이상 주로 許子東, 「序」, 許子東 編, 『香港短篇小說選 1998~1999』, (香港: 三聯書店, 2001.11.), 1-11쪽 참고.

32) 許子東, 『吶喊與流言』,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4.10), 278쪽 참고.

33) 陳德錦, 「文學的專欄和專欄的文學 — 從文體角度略窺香港專欄的藝術特色」,

트문학(即棄文學)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³⁴⁾ 심지어는 문학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³⁵⁾ 그러나 칼럼산문은 비록 집필자의 수준이나 태도에 따라 문학적인 성취가 각이하기는 하지만 우수한 작품이 적잖을 뿐만 아니라, 주로 미감을 위주로 하는 문학지의 산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현실과의 밀착성을 위주로 하는 신문 잡지의 산문의 주요 부분을 담당해왔고, 또한 독자와의 상호 접촉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해온 홍콩 특유의 일종의 ‘아속공상’적인 문학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칼럼산문의 성황에 대해서는 일찍이 1982년에 黃維樑이 간략한 통계로 제시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비교적 대표적인 13개 신문에는 매일 거의 400개의 칼럼이 게재되는데, 그 중 90개는 소설이고 나머지는 각양각색의 칼럼산문으로, 만일 홍콩의 55개 신문의 것을 모두 합한다면 매일 1000개의 칼럼에 500개의 칼럼산문이 게재되는 셈이며, 각종 잡지에 게재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 한다.³⁶⁾ 홍콩 반환 직후까지도 이러한 칼럼산문은 숫자상으로는 거의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신문에 매일 출판되는 칼럼은 천 개 이상인데, 이런 칼럼문장 중에서 가장 흡인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살상력이 있는 雜文 — 일종의 문예성 정론이다.”³⁷⁾라는 언급이나, “매일 발행되는 중문신문이 40부 정도고 각 신문마다 칼럼이 평균 20개라면 홍콩 독자가 매일 읽을 수 있는 칼럼의 수는 800개에 달할 것이다.”³⁸⁾라는 추정이 이를 잘 나타낸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상당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編, 『第二屆香港文學節研討會講稿匯編』, (香港: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1998), 116쪽.

- 34) 吳耀農, 「臺港海外十年散文印象」,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9-6, 176쪽.
- 35) 陳炳良 編, 『香港當代文學探研』, (香港: 三聯書店, 1992), 1-4쪽.
- 36) 黃維樑, 「香港文學研究」, 『香港文學初探』, (香港: 華漢文化出版社, 1985), 2-34쪽.
- 37) 璧華, 「過渡時期香港文學題材的演變」,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編, 『第二屆香港文學節研討會講稿匯編』, (香港: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1998), 195쪽.
- 38) 蔡敦祺 主編, 『香港文學年鑑 1997年』, (香港: 香港文學年鑑學會出版, 1999.3.), 755쪽.

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이전에 산문 다원화의 추세 속에서 문학 산문이 비주류산문이 된 것은 그렇다 치고, 칼럼산문의 성행이 여전하지만, 보고문학, 문화평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칼럼산문 및 다양한 유형의 논픽션과 제로섬 게임을 형성하면서 출판계의 주류를 유지하고 있었다.³⁹⁾ 특히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홍콩 반환 전후부터 신문의 칼럼문장에서 문학적 성격의 문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초보적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홍콩의 비교적 대표적인 11개 신문의 2006년 1월 21일자 지면에는 예상보다 적은 수인 모두 160개의 칼럼산문이 실렸는데, 특히 그 중에서 문예성을 띤 칼럼산문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⁴⁰⁾ 요컨대 칼럼산문의 퇴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칼럼산문의 퇴조는 무엇보다도 영상문화와 인터넷문화의 성행에 따라 신문의 독자수가 갈수록 줄어들게 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신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시각적 기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방법으로 지면의 많은 부분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채우는 한편 활자의 크기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히 신문에 게재되는 전체 문장의 양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특히 홍콩 반환 문제로 인해 촉발된 홍콩인의 사회 변동에 대한 관심이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흡인력이 강한 시사성 문제를 선호하는 한편, 현대적 대도시 홍콩의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하는바 홍콩인들이 비교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십성 이야기를 좋아함으로써,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극성이 적은 문학성 성격의 문장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보이게 되어 후자의 비율이 더욱 크게 줄어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2006년 1월 20일자『蘋果日報』의 경우, 총면수 116면 중에서 문학성을 띤 면은 겨우 『蘋果副刊』 1면에 불과할 정도였다. 결국 “신문 부간의 내용이 비교적 단일하면서 정치화하고 있으며,

39) 陳德錦, 「千禧年香港期刊散文綜論」, 陶然 主編, 『香港文學』總第219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有限公司, 2003.3), 66-76쪽 참고.

40) 각 신문별 칼럼산문의 수는 『明報』 25, 『成報』 8, 『新報』 10, 『信報』 28, 『大公報』 14, 『文匯園』 12, 『太陽報』 7, 『星島日報』 15, 『蘋果日報』 12, 『東方日報』 14, 『香港經濟日報』 15 였다.

소수만이 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90% 이상은 모두 정론적 잡문이거나 뉴스의 연장 내지 보충이 되었다. 특히 2003년 초 이라크 전쟁 시기와 사스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홍콩의 신문 종합성 부간은 거의 모두 이런 제재 일색이었고 논의도 거의 비슷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대부분 신문 칼럼은 무미 건조해져버려 문학적 색채는 논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⁴¹⁾라는 말이 과언은 아닌 셈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통속문학과 순문학의 상호 접근은 외형적으로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홍콩문학이 은연중에 중국대륙문학과와의 상대적인 차별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의 변화 탓에 순문학과 통속문학이 서로 소통하는 홍콩문학 특유의 칼럼산문이 퇴조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문학의 독자성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 홍콩문학의 지위 제고와 지역문학으로의 위축에 대한 우려

홍콩 반환의 문제가 표면화하자 중국대륙에서는 홍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홍콩문학에 대한 소개와 연구 역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홍콩 자체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로 홍콩문학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과 더불어 홍콩문학의 의의를 탐구하고 홍콩문학 작품의 가치를 논하는 많은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품의 창작면에서도 이러한 실천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홍콩 및 중국대륙의 이와 같은 시도와 노력은 많은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홍콩 반환을 전후하여 다수의 홍콩문학사가

41) 東瑞, 「香港文學書籍和市場需求」, 『作家月刊』(香港) 第25期, 2004.7., 18-24쪽.

편찬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론서, 자료서 및 작품집의 출간이 그러하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이러한 시도와 노력의 가장 중요한 한 결과는 홍콩문학의 의의와 성취가 인정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비록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홍콩문학이 중국문학이라는 큰 범주 하에서 자신 만의 특성으로 중국대륙문학이나 타이완문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 문학적 성취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 것이다.

홍콩문학의 지위가 어느 정도로 제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홍콩 반환 이후 잇따라 개최된 일련의 학술대회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1998년 ‘金庸年’이라고 불릴 정도로 잦았던 金庸에 관한 전후 5차례의 토론회, 1999년 4월 香港文學國際研討會, 1999년 9월 香港傳記文學學術研討會, 1999년 12월 香港80年代文學現象研討會, 2000년 10월 余光中暨沙田文學國際研討會, 2000년 12월 香港散文詩研討會 ... 등. 이와 같은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학술대회는 홍콩문학의 의의와 성취에 대한 커다란 관심이자 충분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홍콩문학의 지위 제고는 홍콩과 중국대륙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03년 프랑스에서는 ‘홍콩문학과 그 특이성 Hong Kong et l'expérience de l'altérité’ 학술회 (Villa Gillet, Lyon)가 개최되었고,⁴²⁾ 2004년 한국에서는 ‘동아문화 속의 대만-홍콩문화와 한국’ 학술회(동아현대중문문학국제학회, 서울)가 있었다. 또 Hong Kong Collage: Contemporary Stories and Writing (1998), Voices in the heart : postcolonialism and identity in Hong Kong literature (2003) 등이 출판된 영어권은 물론이고, 프랑스에서는 『像我這樣的一個女子』(1997), 『島與大陸』(2001), 『對倒』(2003), 『鐘與龍 — 香港當代小說選集』(2004) 등의 프랑스어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⁴³⁾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거론한 바처럼 필자 등에 의해 『사람을 찾삼

42) 甘寧, 「香港文學和她的特異性」研討會在法國里昂舉行, 『香江文壇』 總第25期, (香港: 香江文壇有限公司, 2004.1.), 56-57쪽 참고.

43) 安妮 居裏安, 「鍾與龍 — 香港當代小說」, 陶然 主編, 『香港文學』 總第232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有限公司, 2004.4). 28-32쪽 참고. 괄호 속 연도는 프랑스어판 출간 연도.

니다』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홍콩문학이 국제적으로도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1980년대에 잠시 일었던 소위 ‘사막론’과 비교해보자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홍콩문학 지위의 상승이 문학과 학술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홍콩 중등학교 교과 과정의 변화는 이 점을 확연히 보여준다. 1990년대 초 중등학교 중국어문 과정에 처음으로 홍콩작가의 작품 4편이 포함된 이래 홍콩 반환 이후에 이르러 중등학교 중국어문 과정에 포함된 홍콩문학 작품의 수가 놀라울 정도이다. 2001년 홍콩과정 발전의회에서 발표한 중등학교 중국어문 새 교과과정에 따르면, 교과서 편찬용이나 교사 강의용으로 추천된 600편의 문학작품 중에는 60여 편이 홍콩작가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또 실제로 2002년에 출판된 새 교과서에는 적잖은 홍콩작가의 작품이 다루어지고 있다.⁴⁴⁾ 비록 이들 작품이 과연 홍콩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든가 또는 중등학교 어문 교육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분명히 홍콩문학의 지위가 제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콩문학의 지위가 이처럼 제고되기는 했지만, 홍콩 반환 이후 홍콩문학의 지위와 관련하여 낙관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홍콩 반환 후 중국대륙과의 관계 강화로 인해 홍콩문학이 홍콩이라는 좁은 지역을 벗어나서 중국대륙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크게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희망적 관측이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다. 홍콩문학의 중국대륙 진출은 중국대륙에서의 일부 작품의 판매 호조, 중국대륙작가의 홍콩문학 모방 등에서 일정 부분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기대했던 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중국대륙 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홍콩문학이 종래 중국대륙문학과는 다른 성향의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겠

44) 黃維樑, 「十多年來香港文學地位的提升」, 『香江文壇』總第11期, (香港: 香江文壇有限公司, 2002.11), 15-16쪽 참고.

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환경이나 문학적 습관 등에서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홍콩문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또 유통의 측면에서 볼 때도 원래부터 홍콩의 책값이 비싼데다가 중국대륙에서 수입하는 서적에는 관세가 붙기 때문에 홍콩의 책이 중국대륙에서 소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홍콩문학 작품을 중국대륙에서 재출판하는 방식은, 판매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판권 섭외라든가 작품 선별을 담당할 전문가가 결여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여건에 있는 중국대륙 출판사로서는 그다지 썩 적극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⁴⁵⁾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아 중국대륙문학 및 문학관의 홍콩 진출은 제법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長恨歌」(王安憶)의 유행이라든가 중국 대륙 쪽 학자나 문학가의 빈번한 홍콩행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종의 홍콩문학에 대한 중국 대륙 쪽 시각의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홍콩문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홍콩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중국 대륙 쪽 학술 관점의 지속적인 전파, 홍콩 내 중국 대륙계 문학단체 및 작가의 꾸준한 활동, 중국대륙의 문학작품 특히 가독성과 문학적 의의를 겸비한 작품의 유행 등은 홍콩문학 특유의 문학과 스타일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홍콩문학에 대한 중국대륙의 시각은 특히 주의할 만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홍콩문학의 독자성은 인정하되 궁극적으로 홍콩문학은 중국문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중국대륙의 문학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도 홍콩 사회 전체에 대한 중국대륙의 영향과 결합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홍콩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커다란 잠재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5) 이런 점들은 홍콩 관련 서적이나 홍콩문학 작품집의 출판이 주로 홍콩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대륙의 동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좀 더 즉각적인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홍콩 반환 이후 홍콩 사회 전반에 중국대륙의 시스템이 일부 적용되기 시작함으로써, 홍콩 사회는 단기적으로는 결정적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홍콩문학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문단의 자기 통제 확산 가능성이 그러하다. 이미 홍콩 반환을 전후한 시기에 일부 신문이 칼럼작가의 정치적 성향 고려한다든가 일부 문학 간행물이 자발적으로 민감한 원고를 회피하거나 민감한 표현을 삭제한 적이 있다.⁴⁶⁾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홍콩 반환 이후에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대륙의 작가들이 언론 자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을 때, 홍콩 현지의 출판인은 스스로 철병을 하면서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 비록 아부는 아니지만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행위이다.”⁴⁷⁾라며 출판계의 소극성을 질타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문학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 중에는 홍콩 문단의 내부적인 요소도 없지 않다. 그 중 한 가지가 작가의 도전성이나 적극성의 부족이다. 홍콩의 여건상 우수한 작가의 배출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앞에서 거론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다. 현재 활동 중인 작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홍콩문학에 좋은 이야기가 많지 않은 이유는 작가들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46) 古遠清, <’96~’97年的香港文學批評>,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9-1, 221-224쪽 참고. 또 『香港短篇小說選 1990~1993』을 펴낸 黎海華는, 홍콩 반환과 관련한 우려를 담은 黃碧雲의 「雙城月」은 작가의 개인적 이유와 모종의 원인으로 제외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 餘非의 「那一叢叢的灌木林」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객관적 이유 탓에 제외함으로써 이 소설선의 맥락과 동떨어진 「一個冬季裏的旅行者」를 게재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다. 黎海華, 「序」, 『香港短篇小說選 1990~1993』, 黎海華 編, (香港: 三聯書店, 1994.8.) 참고.

47) 彭志銘, 「奔向死亡的香港書業」, 『作家月刊』(香港) 第33期, 2005.3, 6-7쪽.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가공해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또 홍콩에는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독자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는 홍콩 반환, 아시아의 금융위기, 홍콩 거주권 문제, 사스 등 수많은 사회적 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기 자신 들여다보기에만 열중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⁴⁸⁾ 작가들의 노력 부족과 적극성 결여가 우수한 작품을 낳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작품 속에서 읽을 만한 이야기가 사라지게 만듦으로써 독자를 상실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작가들 자신에게도 홍콩문학의 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볼 때, 홍콩문학은 그 자신이 지닌 독자성을 바탕으로 중국대륙문학과 병칭될 수 있을 만큼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 반환으로 인하여 장차 자칫하면 중국문학 내 어느 한 지역문학으로 추락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6. 일시적 요동, 일상의 회복, 변화의 잠재

홍콩 반환 이후의 홍콩문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중국 대륙 쪽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홍콩 쪽에서는 대체로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필자 자신은 일찍이 이렇게 예상한 바 있다.⁴⁹⁾ 상당 기간 홍콩문학이 결정적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국적 문화(문학) 전통의 계승은 좀 더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 그 대

48) 紀馥華, 「如何擺脫當前文學的困境」,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編, 『第三屆香港文學研討會講稿彙編』, (香港: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1999.11.), 86-99쪽.

49) 이하 홍콩문학에 대한 예상과 독자성에 관한 것은 필자의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신 서방문화(서방문학)에 대한 수용은 약간 줄어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인 네트워크의 한 중심점으로서 홍콩의 역할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문학 내에서 홍콩문학의 지위 역시 더욱 제고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중국대륙의 거대한 독자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홍콩 반환 후 아직 채 10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필자나 다른 사람들의 예상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동안 홍콩문학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홍콩문학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홍콩문학은 여전히 특정 이데올로기나 문학 관념이 지배하지 않는 다양성, 상업적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상업성, 작가의 이동이 대규모적이고 빈번한 유동성, 중국문학과 세계문학이 상호 소통하는 교통성, 중국 대륙문학과 타이완문학 및 세계 각지의 중국인 문학을 연결하는 중계성, 현대적 대도시에 바탕한 소재와 사고와 감각을 표현하는 도시성, 칼럼산문이나 무협소설과 같은 분야가 성행하는 대중성 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 점은 상술한 바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 한 가지인 중계성만 살펴보자. 인적 문화적 네트워크로서의 중국의 문학에서 홍콩문학의 그물 버리적 지위는 대단히 주목할 부분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지위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香港文學』다. 『香港文學』는 홍콩 반환 이후에도 여전히 ‘홍콩에 바탕하되 해내외를 겸하면서 유과는 불문하지만 작품의 질을 추구한다’는 창간 취지에 걸맞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2000.9~2005.9 사이에 『香港文學』에 게재되었던 작품을 선별하여 펴낸 총 8권의 [香港文學選集系列]에는, 262 작가의 393 작품이 실려 있는데,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홍콩작가와 세계 각 지역의 중국인 작가의 작품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홍콩 122 외에 중국대륙 54, 타이완 21, 싱가포르 11, 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4, 태국 1, 호주 1, 미국 18, 캐나다 7, 유럽 16, 일본 2

등으로 세계 각지에 고루 걸쳐있다. 이처럼 『香港文學』는 창간 취지 그대로 홍콩적 특색을 유지하면서 세계 각지에 산재한 ‘華文文學’ 작품을 수용함으로써 ‘華文文學’의 창구요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중국대륙과 관계가 원만치 않은 北島, 劉再復 등과 같은 인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중간지로서 홍콩을 자주 방문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北島의 경우, 한 차례 중국대륙 방문이 허락된 적도 있지만 2005년 5월말 한국 방문 직후에 희망한 중국 대륙 방문은 거부되었는데, 그 얼마 후인 2005년 11월말에 홍콩을 방문하여 香港中文大學, 香港大學, 商務印書館 등에서 각각 강연을 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香港文學』나 北島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홍콩문학은 홍콩 반환 이후에도 여전히 중계성이라는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⁵⁰⁾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종합해 볼 때, 홍콩 반환으로 인해 홍콩문학은 일시적 요동도 있었고 부분적 변화도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하겠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홍콩 반환은 영상문화 및 인터넷문화의 일반화와 더불어 홍콩문학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홍콩문학의 변화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대륙 쪽이든 홍콩 쪽이든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홍콩문학이 중국문학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문제는 대단히 유동적이다. 만일 홍콩이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추구를 해나간다면, 그들의 희망대로 홍콩문학은 전과 다름없이 중국문학의 한 갈래이면서도 중국대륙 문학과는 구별되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 대륙 쪽의 끊임없는 직간접적 공략 및 갈수록 악화되는 문학 환경에 순응하여

50)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해외 이주 홍콩작가 및 해외 중국인 작가와의 관계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대륙이 갈수록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국대륙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곧바로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다.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게 된다면, 아마도 홍콩문학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실은 지류로서의 홍콩문학이 본류로서의 중국대륙문학에 합류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되고 말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김혜준,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 『중국어문논총』 제25집, 서울 : 중국어문연구회, 2003년 12월, 517-539쪽.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 21, 23, 30, 31, 33, 36, 37호,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1.12. ~2006.6.
- 레이 초우,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 서울: 이산, 2004.
- 레이 초우, 장수현, 김우현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서울: 이산, 2005.
- 하마시타 다케시, 하세봉, 정지호, 정혜중 옮김, 『홍콩: 아시아의 네트워크 도시』, 서울: 신서원, 1997.
- 東瑞, 「香港文學書籍和市場需求」, 『作家月刊』(香港) 第25期, 2004.7., 18-24쪽.
- 趙稀方, 「香港文學的年輪」, 『作家月刊』(香港) 第31期, 2005.1, 70-80쪽.
- 彭志銘, 「奔向死亡的香港書業」, 『作家月刊』(香港) 第33期, 2005.3, 6-7쪽.
- 吳躍農, 「臺港海外十年散文印象」,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9-6, 175-178쪽.
- 古遠清, 「96~'97年的香港文學批評」,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9-1, 221-224쪽.
- 香港作家聯會 編, 『香港作家聯會十年慶典特刊』, (香港: 香港作家聯會出版部, 1998.3.1)
- 漢聞 主編, 『香江文壇』 總第1~42期, 香港: 香江文壇有限公司, 2002.1~2005.12.

- 陶然 主編, 『香港文學』 總第188~252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有限公司, 2000.8.~2005.12.
- 陶然 主編, 『香港文學選集系列』(1~8), 香港: 香港文學出版社有限公司, 2003~2005.
- 馮偉才 編, 《香港短篇小說選 1984~1985》, 香港: 三聯書店, 1988.
- 馮偉才 編, 《香港短篇小說選 1986~1989》, 香港: 三聯書店, 1994.
- 黎海華 編, 《香港短篇小說選 1990~1993》, 香港: 三聯書店, 1994.
- 許子東 編, 《香港短篇小說選 1994~1995》, 香港: 三聯書店, 2000.
- 許子東 編, 《香港短篇小說選 1996~1997》, 香港: 三聯書店, 2000.
- 許子東 編, 《香港短篇小說選 1998~1999》, 香港: 三聯書店, 2001.
- 許子東 編, 《香港短篇小說選 2000~2001》, 香港: 三聯書店, 2004.
-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編, 『第二屆香港文學節研討會講稿匯編』, 香港: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1998.
-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編, 『第三屆香港文學研討會講稿彙編』, 香港: 臨時市政局公共圖書館, 1999.
- 李蘊娜 編, 『第四屆香港文學節論稿匯編』, 香港: 香港藝術發展局, 2003.
- 黎活仁 等, 『香港八十年代文學現象』(1,2), 臺北: 學生書局, 2000.
- 黃維樑 主編, 『活潑紛繁的香港文學: 1999年香港文學國際研討會論文集』,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0.
- 黃維樑, 『香港文學初探』, 香港: 華漢文化出版社, 1985.
- 陳炳良 編, 『香港當代文學探研』, 香港: 三聯書店, 1992.
- 黃繼持 等, 『追跡香港文學』,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1998.
- 古遠清, 『古遠清自選集』, Kuala Lumpur: 馬來西亞燭火出版社, 2002.
- 趙稀方, 《小說香港》, 香港: 三聯書店, 2003.
- 許子東, 『吶喊與流言』,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4.
- 蔡敦祺 主編, 『香港文學年鑑 1997年』, 香港: 香港文學年鑑學會出版, 1999.
- 香港散文詩學會 主編, 『香港散文詩選』, 香港: 香港文學報出版社, 1998.
- 胡國賢 編, 『香港近五十年新詩創作選』, 香港: 香港公共圖書館, 2001.
- 迪志文化出版編輯部 編, 『香港網絡文學選集: 心情網絡』, 香港: 迪志文化

出版有限公司, 2001.

香港藝術發展局 <http://www.hkadc.org.hk/tc/>

香港文學資料庫 <http://hklitpub.lib.cuhk.edu.hk/>

【Abstract】

The Changes in Hong Kong Literature and Its Meaning since the Return of Hong Kong

Kim, Hye-joon

Here I concentrate on the changes in Hong Kong Literature and its meaning ever since the return of Hong Kong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97. Furthermore, I take it into account whether the position of Hong Kong literature will change with the value of *human-cultural network* conception within the boundary of Chinese literature.

From the time when the return of Hong Kong became visible in early 1980s, Hong Kong literature has concurrently tried to explore and pursue Hong Kong's identity. After the return of Hong Kong, the literature has internally impersonated what it seeks, and has established Hong Kong's identity by dealing with wide varieties of the existing conditions in society. Increasingly the literary works express 失城 (*The Lost of the City*) and the feeling of alienation in the modern big city. They depict various kinds of love whether

heterosexual, intersexual, homosexual or bisexual in the modern big city. On that account, it is quite a natural phenomenon that the literature has come back to such subjects as the problems of social status, women, post-colonialism and social interest. In short, it is a remarkable change that Hong Kong literature not only gets a little bit out of the restriction within its seeking and establishing of Hong Kong's identity, but that it also makes diverse experiments when it comes to literary artistic quests.

Hong Kong literature has started just before the return of Hong Kong and is still very prosperous in that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in literature associations, publications of literary books and periodicals as well as literary awards and events. I assume that such many facts are related to these circumstances as the efforts of writers; hidden intentions of groups and parties;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Hong Kong government. However, the social environment of Hong Kong literature is getting worse. The condition of publishing business is also deteriorating, and some literary bases like 副刊 (*Literary supplement*) are collapsing gradually. Even more, the internet literature, as a new attempt, seemed to hit the peak once but soon went on the decline, and it is getting harder to bring up its good writers. Looking superficially, the literary activities seem very alive, but looking into its deep side, it is getting worse as time goes by. I believe the return of Hong Kong is considerably influencing both the superficial and the deep sides.

After the return of Hong Kong, there has been a mutual approach to the serious and popular literature. This may mean that Hong Kong literature tacitly emphasizes its own difference from the mainland Chinese literature. If one may say that the

mainland Chinese literature has mainly developed only the serious literature, then Hong Kong literature has developed two kinds of literature together, one for expressing the modern sense and another for the amusement of the city life. However, being an unique way of Hong Kong literature, 專欄散文 (*column writing*) which mak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serious and popular literature is fading gradually. Not only the very number of *column writing* has relatively been reduced but the literariness of the *column writing* has significantly been diminished.

It is true that after the return of Hong Kong,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Hong Kong literature as it was introduced around the world. This makes Hong Kong literature earn two recognitions: first, Hong Kong literatur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self from the mainland Chinese literature and Taiwan literature: second, Hong Kong literature has gotten some remarkable outcome and reached the level of the mainland Chinese literature and Taiwan literature. Nevertheless, it is not very easy to propagate Hong Kong literature to China, but on the contrary the opposite direction is more active. It cannot be underestimated that Hong Kong literature is under the intangible influence of the system of mainland China. It is quite hard to bring up the good Hong Kong writers as well as to expect its writers to endeavor and challenge as before in the past. It is hard to deny the possibility that Hong Kong literature will someday be reduced to one regional branch of Chinese literature.

There were partial and temporal ups and downs in Hong Kong literature because of the return of Hong Kong to China, but there has been no fundamental and decisive change until now. I assume that in the long run the indigenous character of Hong Kong

literature will be very much in a state of flux. The return of Hong Kong—together with the spread of internet and media culture—has always brought and continue to bring a great deal of influence to Hong Kong literature. In a word, Hong Kong literature will be an individual and unique event in Chinese literature as before. Only if Hong Kong spontaneously maintains its own system and continues its quest for identity, then it can find a way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Chinese literature.

Key words: 1997, the Return of Hong Kong, changes, position, China as a *human-cultural network*, Chinese literature, mainland Chinese literature, Hong Kong Literature, Taiwan literature, Overseas Chinese literature, quest for identity, expression of alienation, literary activities, social environment, serious literature, popular literature, *column writing*, recognitions, temporal ups and downs, fundamental change